

# 유럽 문명史에서 '공존'의 길을 찾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 문명의 그물 조홍식 지음

책의 시작이 이렇다. "유럽이란 무엇인가"간명하지만 평소에는 해 보지 못한 질문이다. 대부분 유럽 하면 유럽연합, 선진국들의 연합체, 극우민주주의 등 단편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다.



물론 '아시아 서쪽엔, 그리고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대륙'이라고 답할 수 있다. 하나의 대륙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간단해진다. 그러나 유럽은 땅과 지형이라는 유형의 요인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복잡한 체제다.

유럽은 늘 세계사의 중심에 있었다. 끊임없이 늘어난 일이 일어나고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오늘날 근간을 이루는 많은 체제의 바탕이 유럽에서 파생됐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유럽의 모델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유럽이라는 주제가 관심을 끄는 것은 작금의 유럽 변화와도 무관치 않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포퓰리즘, 난민문제 등 어느 것도 쉽지 않다.

유럽을 하나의 문명이라는 복잡한 그물로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파리정치대학에서 유럽 통합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조홍식 숭실대 정치외교학

언어·종교·음악 등 12개 키워드로 해석한 유럽 문화  
견제·경쟁·교류의 경험이 유럽의 힘... 한반도 시사점 제시  
지도·사진·거장들의 예술 작품 등 볼거리도 풍성

과 교수가 펴낸 '문명의 그물'은 한마디로 유럽문화의 파노라마다. 또한 오랫동안 '다양한 민족과 국가가 어떻게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의 유럽을 이루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보고서다.

저자는 언급한 대로 문명의 그물로 유럽을 들여다보며 본질과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문명이란 긴 역사를 가운데서도 가장 긴 역사"라고 정의했듯이 문명은 복합적인 형식의 '구조'에 다름아니다.

저자는 유럽 문명을 형성하는 12개의 키워드를 선정하고 다양한 그물을 소개한다. 여기서 그물은 '느슨하고 유연한 연결'을 전제한다. 다양한 영역의 다수 그물이 서로 겹치면서 연결돼 문명을 형성한다. 또한 그물은 사물이나 인간의 행동에 관여하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도 긴밀하게 상통된다. 이론은 예를 들면, 길에 따라 인간의 이동행위가 변한다는 것과 같은 이치다.

먼저 언어라는 그물을 보면 유럽에는 24개의 공식언어가 있다. 이 말은 사실 보고서와 같은 공식 문서가 24개 언어로 번역돼야 함을 뜻한다. 하지만 서로 비슷한 구조를 띤 언어가 많다. "알파벳이라는 같은 문자를 바탕으로 수천년 동안 교류하면서 하나의 문화 토양을 공유해왔다. 통합과 다양성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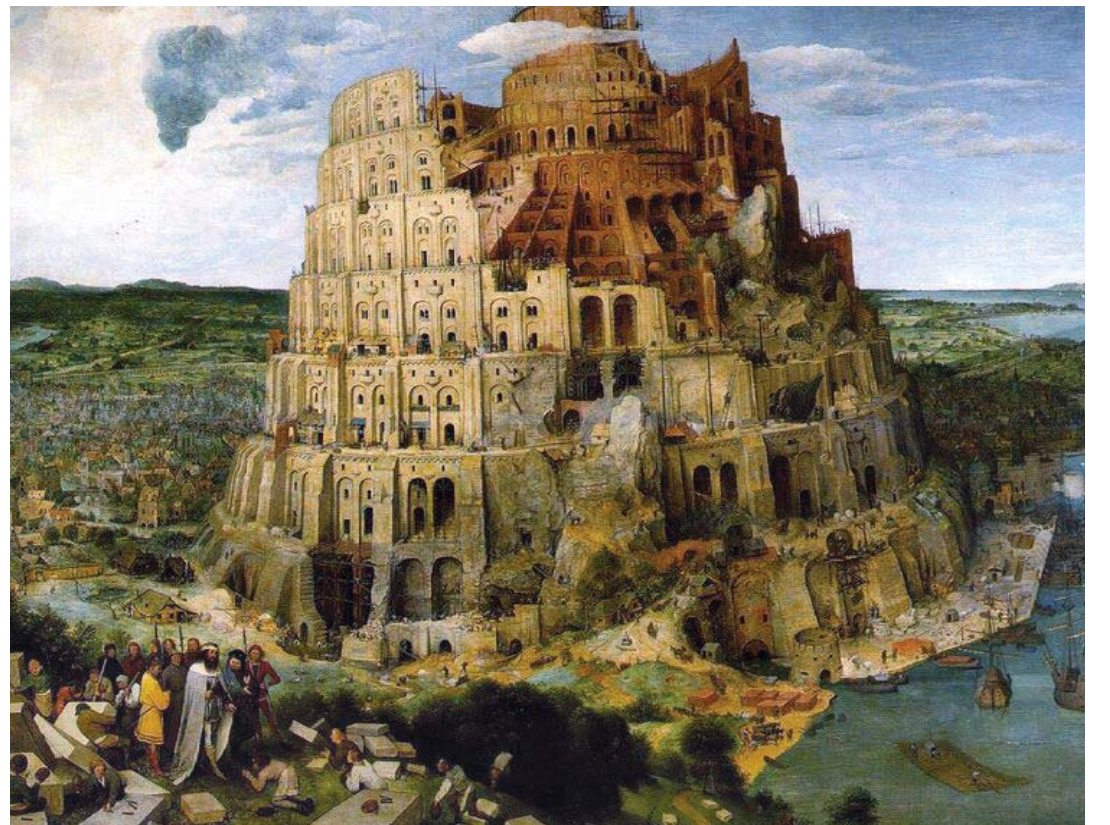
라는 유럽 문명의 특징을 언어와 문자에서부터 보여 주는 것이다."

저자는 언어 외에 종교, 표상, 음악, 대학, 도시, 자본 등 익숙한 주제를 '그물'이라는 핵심 키워드로 풀어낸다. 마치 그물의 이미지는 담쟁이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과 유사하다.

흥미로운 점은 축구를 하나의 그물로 상정한 대목이다. 저자는 축구에 내재된 근대성으로 유럽 문명의 성격을 파악한다. "축구를 통해 유럽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도 설명한다.

"축구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산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만큼 축구는 귀족사회의 산물이다. 축구는 귀족이나 부르주아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활용되었기 때문에 길거리 축구와 달리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다. 거리가 공터에서 대중 벌이던 패싸움의 축구에서 정확한 규칙의 운동장에서 벌이는 게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책에서 설명하는 유럽 문명의 특징은 다양성과 복합체로 규정된다. 다양한 중심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교류하고 모방하는 체제라는 것이다. 나아가 단기 경쟁을 넘어 경쟁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됐고 이 과정에서 경쟁과 협력의 경험이 유럽의 힘이 됐다는 논리다.



피터르 브뤼헬 작 '바벨탑' (책과 함께 제공)

책에는 다양한 지도와 사진이 첨부되어 볼거리도 풍성하다. 오늘의 유럽을 있게 한 그물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 사회를 있게 한 그리고 미래의 우리 사회를 지탱하게 할 그늘은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책과함께·2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 J. M. G. 르클레지오, 윤미연 옮김 '원무, 그 밖의 다양한 사건사고'

프랑스어 'La ronde'는 '원무(圓舞)라는 뜻 외에 '순환대' '계속해서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움직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소설적 의미에서 '원무'는 되풀이되는 행위라는 뜻이다.



2008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르클레지오의 '원무'는 1988년 '배회, 그리고 여러 사건들'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첫 소개됐던 작품으로, 이번에 문학동네에서 새로운 번역으로 출간됐다.

열한 편의 단편에는 현대 문명의 난폭함과 현대인의 정신적 공황을 다룬 작가의 초기 작품, 자연으로 회귀하며 인간의 강인한 생명력과 원시의 힘을 강조한 중후기의 경향이 골고루 투영돼 있다.

각각의 단편에서 인물들은 고독과 억압, 불평등과 가난 등 비참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모험을 감행한다. 그러나 결국 불행의 돌레를 내달리다 또다른 불행한 운명과 맞닥뜨리는 비극에 빠진다.

뉴욕타임스가 "르클레지오는 눈길을 사로잡는 짧은 이야기 속에서 불멸 이민자, 폭주족, 가솔린 청소 등 사회의 헤쳐나갈 인물을 그려내고, 그 속에서 그들이 품은 꿈들은 가차없이 악몽이 된다"가 평한 것처럼, 소설은 소외된 세상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표제작 '원무'는 마프틴과 티니, 오토바이를 탄 두 소녀가 시내 한복판의 작은 광장 근처에서 만나는 내용이다.

티니와 그의 남자친구는 먼저 담배를 피우며 기다리고 있다. 마프틴은 점심을 먹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 생각이 없었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하자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낀다.

〈문학동네·1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이근식 지음 '애덤스미스 국부론'

"신학에서 시작하여 윤리학과 법학을 거쳐 경제학으로 완성된 장대하고 수미일관된 체계."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을 일컫는 말이다. 1976년 영국의 정치경제학자이자 도덕철학자인 애덤스미스의 '국부론'은 경제학을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탄생시켰다.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도 '경제학의 아버지'가 애덤스미스라는 사실과 '보이지 않는 손'이 무엇인지는 안다. '국부론'은 애덤스미스가 중소상공인, 은행인, 기술자 등 각계각층 인사들과 교류하며 경제, 정치,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고 발품을 팔아 쓴 책이다. 출간되자마자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19세기 시대정신으로 보급됐다.

이근식 서울시립대 명예교수가 펴낸 '애덤스미스 국부론'은 애덤스미스의 사상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준다. 그동안의 '국부론'은 "읽기 지루한 부분도 많고, 그 분량도 1000쪽에 가까워 완독하려면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 저자는 핵심 중 핵심이라 할 만한 내용 모두를 손안에 잡히는 책 한 권에 체계적으로 담아냈다.

사실 '보이지 않는 손', '공감', '자기사랑', '자연적 자유' 등과 같은 개념들은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자들이 먼저 주장했지만 스미스는 이들을 모아 '경제적 자유주의'란 새로운 체계를 완성했다. 무엇보다 풍부한 자료와 엄밀한 논리가 첨가되어 설득력이 높다. 저자는 '국부론'을 깊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둘 뿐 아니라 기존의 왜곡된 관점과 해석에도 비판의 날을 세운다. 예를 들어 198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스미스가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신자유주의 구호가 얼마나 애덤스미스를 오도한 것인지 밝힌다. 〈뱀앤파커스·1만3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최승호 지음 '방부제가 썩는 나라'

"그동안 시는 나의 뜻이자 뜻이었다. 시가 부풀어 나를 설레게 했고 사해를 향해 갔으며 닷 내릴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그리하여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글쓰기가 가능하도록 일깨워 주었다. 그러나 때로 시는 나를 괴롭혔다. 버리기 싫은 몇몇의 말이다."



오늘의 작가상, 김수영문학상, 미당문학상, 대산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최승호 시인이 '방부제가 썩는 나라'를 펴냈다.

시인은 지난 1977년 등단 이래 수많은 시들을 쏟아내며 강렬한 시적 상상력을 보여왔다. 그동안 사물을 포착해내는 직관력을 바탕으로 문명의 화려한 껍데기 아래 썩어가는 사회의 단면을 들추어내는 작품을 써왔다.

이번 작품집에서 현대 문명의 어둠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파격의 시들을 선보인다. 시집에는 모두 105편의 시편이 수록돼 있다. 사회의 폐부를 찌르는 강한 비판 의식을 비롯해 특유의 유풀 있는 시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모든 게 다 썩어도/ 뻔뻔한 얼굴은 썩지 않는다" 표제작 '방부제가 썩는 나라'는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가 오히려 썩을 수밖에 없는 부조리하고 추악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풀어낸다. 모든 것이 썩어도 염치없는 뻔뻔함만큼은 결코 썩지 않는 세대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다.

추천사를 쓴 이영광 시인은 "나는 이 책을, 시인의 0번째 시집이라 부르고 싶다"며 육마오가 죽음을 둘러싼 시인의 시선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최승호 시인은 '대설주의보', '고슴도치의 마을', '세속도시의 즐거움', '반딧불 보호구역', '아무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인' 나들의 시집을 펴냈다.

〈문학동네·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방수

##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광주,전남 시공회사

**CMTECH**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름,모방뚱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